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기다리는 하느님

필리 1,4-6,8-11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루카 3,1-6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느 하루는 한 아이와 엄마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준비해 놓은 블록을 쌓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헤매는 것 같아 제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저를 막으면서 “기다려 주면 혼자서 다 완성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니 이내 아이는 결국 혼자서 그 블록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마지막까지 블록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림 -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우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다시 오신다고 한 그날을 분명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 놓았듯(루카 3,4)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일,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만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 곁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마가 블록을 쌓는 아이를 기다리듯 주님도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완성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듯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길을 닦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꼭 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날이 더욱 가까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지금 나는 그냥 손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완성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박종선 갈리스토 신부 | 용잠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바룩 5,1-9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서	필리 1,4-6,8-11
복 음	루카 3,1-6

주님의 길

독일의 유명한 언어학자요 동화 수집가였던 빌헬름 그림(Wilhelm Grim, 1786~1859)의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태초에 하느님은 사람, 소, 개, 원숭이에게 똑같이 30년의 수명壽命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은 30년이 짧다고 하며 더 살게 해달라고 청했고, 다른 동물들은 길다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소는 18년, 개는 12년, 원숭이는 10년을 반납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 반납한 40년을 합해 70년을 살게 되었다. 이 중 30년은 성장해 결혼하여 살고, 그 후 18년은 소처럼 자식들의 굴레에 얽매어 산다. 그리고 다음 12년은 개처럼 집을 지키고 손주들을 봐주며 살고, 나머지 10년은 원숭이처럼 대접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

루카 3,4-6에서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말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며,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 길은 자동차 길도 자전거 길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의 길이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悔改는 뉘우칠 회悔와 고칠 개改가 뜻하듯,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일이다. 그래서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삶의 변화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뉘우침과 동시에 잘못을 바로잡아 돌아서야 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원상회복原狀回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제대로 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을 고쳐 제자리로 돌아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루카 15,11-32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갔다. 그러나 먼 고장에서 방종한 생활로 인하여 얼마 안 가서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알거지가 되어 돼지를 치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크게 뉘우쳤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다. 아버지께 야단맞고 내쫓길지도 모르지만, 품팔이꾼으로 써주어도 좋으니 아버지께 사정해 보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어떻게 된 일인가? 뜻밖에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원상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속적인 물질 위주의 삶에서 영적인 신앙 위주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식, 그리고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실망失望에 처한 세 사람보다 낫고,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 절망絶望에 빠진 다섯 사람보다 나으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방종放縱의 삶을 사는 열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무지의 골짜기를 메우고, 편견과 오만의 산과 언덕을 무너뜨릴 때, ‘주님의 길’이 마련된다. 그것이 곧 우리가 대림 시기에 회개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기도 하다. 지금은 70세가 아니라 평균 80세 이상을 살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길’을 마련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옳은 것을 강요하는 바리사이처럼

허태범 요셉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오랜만에 아는 선배와 전화 통화를 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성당에서 만난 사이로 대학에서도 가톨릭학생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다. 그 후로 그 선배는 경찰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통화를 하다 보니 작년 초부터 혼자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 혼인장애가 먼저 떠올랐다.

“형님 관면혼인 했습니까?”

“영? 그게 뭔데?”

‘천주교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 혼인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관면을 받아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힘들 때 성당을 찾으니 편안해져서 혼자라도 계속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보기는 힘든 상황에서 신자도 아닌 배우자까지 성당에 가자고 부담을 줄 생각은 없으니 정식 절차는 나중에 신앙이 좀 생기면 하겠다.

순간 예전 성당 사무장 시절처럼 ‘그러면 안 되고 관면혼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설득하려다가 그만뒀다. 학창시절 다니던 성당을 떠나 있다가 20몇 년 만에 힘들게 다시 찾아서 마음에 평화를 얻고 있는 이에게 부담을 주는 게 과연 옳은가 회의감이 들었다.

물론 나는 성당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찾는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이라 생각지 않는 쪽이다. 진정 하느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공동체에 속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성당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서 조용히 혼자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다 지쳐서 그렇게 혼자 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며 평화를 찾았다는 사람에게 굳이 ‘당신은 혼인장애 상태이니 영성체를 하면 모령성체라는 죄를 짓게 되고, 고해성사를 할 수도 없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며 성당에서 평화를 찾겠다는 걸 막아서는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옳은 신앙생활을 운운하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만 옳다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옳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라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순간 옳은 것은 더 이상 옳은 것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다.

옳은 것을 옳은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다.

제40회 인권 주일, 제11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요약)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모든 형제들, 180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가 과연 “인간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간추린 사회 교리, 388항)하고 있는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치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프란치스코 교종과 한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 바랍니다.

하늘나라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신부님,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예전에 본당 청년 한 명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황급히 임종 전 병자성사를 집전한 다음 착잡한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나서는데 처음 보는 어느 형제님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와 던진 질문이다. 그분 동생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아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자기는 신자는 아니지만 천국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그래서 대답했다.

“예...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은 어찌란 말인가! 살아서 못 살았으면 죽어서라도 잘 살아야 하지 않는가! 부잣집 대문 앞의 거지 라자로처럼 죽어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루카 16,25 참조). 그러니 제발 천국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좀 걸린다. 있어야 할 천국이 꼭 죽어서나 가는 곳이어야 할까?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로 죽어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을 위한 시험장 혹은 수련소 같은 곳인가?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공정해도 꼭 참고 견디면 다음 생애는 보상을 받는다는 뜻인가?

서양의 왕과 귀족들이 그리스도교를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민 평등으로 귀결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아 가난한 백성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를 국가적으로 용인했던 이유가 바로 천국을 향한 내세지향적 사고방식 때문은 아닐까? 가난한 백성들이 현세의 억압과 차별에서 눈을 돌려 내세의 안식과 복락만을 꿈꾸게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의 통치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 아닌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 모두를 ‘십자가’라는 말로 싸잡아 표현하면서 그것이 죽은 뒤 부활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말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듯 내세의 천국이란 것이 간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론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 즉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 있어서 ‘하늘나라’는 곧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내세지향적인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통치는 내세에서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늘나라 곧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내세 혹은 현세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마치 겨자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고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마태 13,31-33 참조).



따라서 하늘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잘게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장소’ 혹은 ‘공간’이 아니라 ‘상태’ 혹은 ‘됨됨이’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는 대부분 장소처럼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라는 단어가 갖는 공간적 이미지에서 파생된 결과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늘나라 곧 하느님 나라는 ‘장소’이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사랑과 일치, 정의와 공정, 생명과 평화 등등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요 ‘됨됨이’에 해당된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내세의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천국을 장소나 공간적인 것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라! 지옥에나 있으면 어울릴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러니 이런 세상 어디에서 천국을 찾을까?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를 장소로서 이해하는 데서 오는 어색함은 이뿐이 아니다. 의인들이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이야 마땅하지만 악인들도 당연한 듯 하늘나라를 꿈꾼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지옥을 꿈꿔야 마땅하지 않은가! 마음이 지옥인데 몸만 천국에 있다고 천국일 수 있을까? 삶이 악한데 장소만 천국이라고 그게 천국이 될까?

쇠 젓가락을 포도나무에 박아놓은들 거기서 열매가 맺힐 리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것이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질로도 그 포도나무를 닮아 있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꾸고 키우는 작은 하늘나라의 모습이요, 이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늘나라와 온전히 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요한 15,1-17 참조)!

“신부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요?”

본당 청년 하나가 한밤중에 전화로 묻는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아는 형’들이 제안하는 ‘옳지 않은 일’들을 다 뿌리치고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인데 요즘 형편이 너무 힘들다보니 자꾸 마음이 흔들린단다. 그래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하는 거다. 그 모습이 너무도 대견스럽고 고마워서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럼, 그럼! 네가 사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야!”

새의 날개가 꺾였다 하여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그리는 그 모습 안에 하늘은 살아있다. 그렇게 하늘나라는 그것을 그리고 추구하는 이들의 삶 안에 존재한다. 순교자들이 그랬다. 순교자들은 죽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인 거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

출처 : 월간 생활성서



일 림

교구/본당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12월 7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소공동체장 연수

일시: 마산지구-12월 7일(화) 13:00

장소: 월영성당

일시: 창원지구-12월 8일(수) 13:00

장소: 사파동성당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12월 11일(토) 13:00~12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요한복음

준비물: 성경,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
필기구, 시계

문의: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신학생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2월 11일(토)

위원회/기관/단체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인회 총회, 미사

일시: 12월 11일(토) 10:00

장소: 교구청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데이트폭력, 로운 '심'과 재충전의 시간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2월 11일(토)~12일(주일)/

22년 1월 22일(토)~23일(주일)

3박 4일- 12월 16일(목)~19일(주일)/

22년 1월 6일(목)~9일(주일)

8박 9일- 12월 26일(주일)~22년 1월 3일(월)/

22년 1월 12일(수)~20일(목)

40일: 12월 20일(월)~22년 1월 28일(금)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2월 11일~13일/ 12월 30일~22년 1월 2일(연말
연시), 22년 1월 8일~10일/ 22년 1월 21일~23일/

22년 1월 28일~30일/ 22년 2월 6일~9일/

22년 2월 12일~14일(눈꽃피정)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성이시들 자연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

로운 '심'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22년 1월 15일~18일/ 22년 1월 22일~24일/
22년 2월 12일~15일/ 22년 2월 20일~22일/
22년 2월 25일~27일/ 22년 3월 6일~8일/
22년 3월 12일~15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2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성심인애원 직원 채용 공고

모집: 생활재활교사

접수: 12월 5일(주일)까지

근무지역: 경남 산청

※ 자세한 내용은 산청성심원 홈페이지

(http://www.sungsim1.or.kr/) 참조 바랍니다.

한마음의 집(무료급식소) 조리사 채용 공고

모집: 1명(조리사 자격증 보유자 및 단체급식
조리사 유경험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조리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접수: 12월 17일(금)까지(방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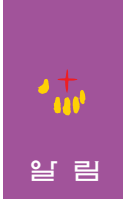
면접: 추후 개별통보

문의: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22. 1. 3.(월)~6.(목)/ 22. 1. 7.(금)~9.(주일) 22. 1. 10.(월)~12.(수) ■ 한국성지 167 완주 22. 1. 17.(월)~20.(목) 전주·광주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주식회사 바른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업 주식회사 바른(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 010-5055-0076	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경선 안나 010 6409 480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음식 백합 매주, 단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창녕본당 제3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정식(암브로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성보경(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하선화(세실리아)
 총무분과위원장: 김광태(미카엘)
 기획관리분과위원장: 최용범(빈첸시오)
 복음화분과위원장: 정인숙(아가다)
 전례분과위원장: 성영옥(루시아)
 구역분과위원장: 김태목(스테파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하옥남(사비나)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유준욱(프란치스코)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윤남(안나)

고현본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고태길(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임상근(벨라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배경순(데레사)
 총무분과위원장: 안철환(바오로)
 재경분과위원장: 최충일(프란치스코)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정미(요세피나)
 교육분과위원장: 김경아(미카엘라)
 전례분과위원장: 강현정(젬마)
 구역분과위원장: 김혜영(크리스티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곽예주(비아)
 시설분과위원장: 김중호(토마스)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대철(시몬)
 홍보분과위원장: 김소은(라파엘라)
 감사: 문종균(요아킴), 김교석(베드로)

양덕동본당 제2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원태(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창근(요셉), 윤종수(마르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조광숙(스텔라), 박영순(아녜스)
 총무분과위원장: 강병수(시메온)
 재경분과위원장: 최영철(알바노)
 전례분과위원장: 장혜영(아델로가)
 복음화분과위원장: 손춘복(가브리엘라)
 지역분과위원장: 민필순(연희마리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영주(모니카)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현주(레오)
 청소년분과위원장: 최수지(모니카)
 가정사목분과위원장: 노순여(아가다)
 꾸리아: 이종표(아오스딩)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월) 16:00~22년 1월 1일(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일(1일당 1~2명)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거창본당 라오브라(La Obra) 성극단, <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창단 공연

<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공연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200주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라오브라 창단 공연으로 준비하였다.

라오브라 성극단은 거창성당(주임: 구성진 율리아노 신부)이 설립되고 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창단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연극의 장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취지로 성극에 관심 있는 남, 여 신자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라오브라 성극단 이름은 연극 행위의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구성된 신부가 직접 지었다.

공연시간: 12월 13일(월) 15:00, 19:00

장소: 거창문화원 상설미술관

입장료: 1만 원

문의: 거창성당 사무국 055·944·0781



소식

교구 수녀연합회 연수, 공소회장단 협의회 정기총회



세계 가톨릭교회는 10월 17일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개막미사를 봉헌하고 2년 동안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즉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모색하는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11월 23일 교구 수녀연합회 연수와 11월 25일 진행된 공소회장단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인석 베드로 신부(사목국장)의 시노달리타스 주제인 '친교, 사명, 참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경청과 식별의 시간을 가졌다.

나의 변방, 우리의 변방은?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속량의 시기에 공동체 생활, 형제 생활 안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것,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별거벗겨짐을 당하는 일’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별거벗겨짐’은 나의 민낯, 수치스러움, 모욕감, 감추고 싶고 감추어 왔던 불편한 진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모습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타(自他)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필수 과정이 이른바 ‘파스카 체험’, 곧 ‘예수님의 자기 비움(케노시스)에의 참여’라는 말로 일컬어집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 것’,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가능할까요? 내 생각과 같은 말을 들을 때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자신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타인의 아픔에 예민하게 공감하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인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판단과 생각, 가치관과 다르고, 나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 더구나 나에게 해를 입히며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듣고, 그의 아픔에 순수하게 공감하며, 그의 입장에 그대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연…???

공동체 생활, 매일의 일상에서 크게 작게 다가오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 입장’ 앞에서 나는 이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내 삶의 수준, 복음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척도임을 살아갈수록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대림 제2주일을 맞는 복음 말씀들 중에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고,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시며, “하느님께서서는 ‘변방과 가장자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십니다. 계속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변방과 가장자리를 선호하십니다…주님께서서는 언제나 변방에서, 우리 영혼의 변방에서, 감정의 변방에서, 아마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 안에서 남몰래 행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지리적이고 실존적인 변방에서 지속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예수님께서서 항상 변방으로 가십니다…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의 변방, 우리 영혼의 변방, 우리 사회와 도시와 가정의 변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는 우리의 약간 어두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수요 일반 알현 교리교육 중에서, 2021년 11월 17일)

너의 변방, 타인의 변방이 아니라, 나의 변방, 우리의 변방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영접하는 ‘구원의 시기’ 되시길 빕니다!